

대한민국 선수단,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 선전 결의 다진다

- 9. 3. 최휘영 장관, 진천선수촌에서 열리는 결단식 참석, 선수단 격려
-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대한민국은 41개 종목 1,052명 참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와 함께 9월 3일(목) 오후 3시, 진천선수촌 벨로드롬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다. 행사는 문체부·대한체육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이번 결단식에서는 최휘영 장관을 비롯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상현 선수단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및 종목단체 관계자, 지도자, 오상욱(펜싱)·여서정(체조) 선수대표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단의 안전한 참가와 선전을 기원한다. 결단식 종료 후에는 도핑 방지와 안전관리 등을 위한 선수단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스포츠, 가상(버추얼) 태권도 등 새로운 종목 도입, 대한민국 역대 아시안게임 최다 종목에 출전

이번 하계아시안게임은 9월 19일(토)부터 10월 4일(일)까지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 일원에서 열린다. 축구·야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목부터 이스포츠, 가상(버추얼) 태권도와 같은 새로운 종목까지, 41개 종목에 1,052명의 선수단이 태극마크를 달고 도전한다. 이번 대회 43개 종목 중 크리켓과 빠텔을 제외한 전 종목에 국가대표를 파견하여, 역대 아시안게임 중 최다 종목에 출전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평소 국민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종목의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과 노력을 알릴 소중한 기회이다. 이스포츠와 브레이킹처럼 젊은 세대가 즐기는 종목을 국제대회에서 만나고, 스쿼시·산악자전거 등 생활체육 종목의 정상급 선수들을 발견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선수단 본단은 9월 17일(금)에 출국해 10월 5일(일)에 귀국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회 참가 지원, 현지에서는 종합상황실 운영

문체부는 선수단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와 대테러센터, 통일부, 질병청 등과 합동으로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선수촌이 컨테이너·크루즈·호텔 등으로 분산되는 이번 대회 현장에서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5개 권역별로 상황실을 구성·운영하며 선수단을 밀착 지원한다.

더불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대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 대응 지침(매뉴얼)을 수립·운영한다. 각 종목단체를 통해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최근 변경된 종목별 경기 규정을 사전에 교육하고, 오심 발생 시 대응체계에 대한 종목별 지침을 배포했다.

선수단 최상의 기량 발휘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맞춤 지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2026 아이치-나고야 팀 코리아 케어(Team Korea CARE)’ 사업을 통해 종목별로 수요 조사를 거쳐 총 31개 종목에 맞춤형 훈련 장비와 국외 전지훈련을 지원했다. 또한, 스포츠 의·과학에 기반해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진천선수촌 메디컬센터에 ‘부상 복귀 프로토콜’을 최초로 구축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상률이 높은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 등 주요 부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메달의 색깔을 넘어 선수들이 후회 없이 기량을 펼치고 건강하게 대회를 마치기를 바란다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채로운 종목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아시안게임의 또 다른 값진 유산일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책임자	과장	이혜림 (044-203-3161)
		담당자	사무관	김보미 (044-203-3167)